

한투 '최고의 IB' 왕좌 ... 주식·채권·IPO 등 '빅딜' 잇단 성공

한국투자증권이 2023년 자본시장을 이끈 최고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한화오션·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두산로보틱스 기업공개(IPO), 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회사채 발행 등 '빅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유상증자·IPO 선전으로 ECM 1위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하는 '제15회 한국IB대상'에서 종합 1위로 선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이 왕좌에 오른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자본시장은 금리 불확실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여파로 변동성이 컸다. 불안감이 커진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자본시장에 접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식발행시장(ECM), 채권발행시

2兆 규모 주식발행 주관 1위
한화오션·SK이노 등 흥행 견인
'틈새 시장' 강소기업 상장 공략
LG엔솔 회사채 조달도 성공

장(DCM), IPO 등 모든 부문에서 3위권 내 진입하며 고른 성과를 나타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총 28건, 2조 1672억원 규모 주식 발행을 대표로 주관해 ECM 부문 1위에 올랐다. 유일하게 2조원대 주관 실적을 달성했다. ECM 전체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차지한 점유율은 20.9%에 달했다.
유상증자에서 조(兆) 단위 대형 딜을 잇따라 성공시킨 점이 돋보였다. 지난해 최대 규모 유상증자였던 한화오션(1조 4971억원)을 포함해 SK이노베이션(1조 1433억원), CJ CGV(4153억원) 등 굵직한 딜에서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공모 청약에서 10조원에 가까운 문



제15회 한국IB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진곤 IB4본부장(앞줄 왼쪽부터), 김성열 IB2본부장, 최신호 IB1본부장, 김성환 사장, 유영환 IB3본부장 등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제공

치돈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이끌었다.
기업의 '자금 조달 파트너'로 신뢰를 쌓아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한국투자증권의 강점이다. 2022년 IPO 주관사로 인연을 맺은 노을의 첫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커버리지(영업) 부서 등이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기업과 소통하며 쌓은 신뢰가 ECM 명가

로 거듭난 한국투자증권의 힘"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IPO 주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조 단위 IPO 딜이 사라진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해 제이오와 마너공장 등 강소기업의 상장을 주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끈끈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유망 기업을 발굴해 증시 입성에 기여했다는 평

제15회 IB대상 수상회사

| | |
|-----------|----------------|
| 종합대상 | 한국투자증권 |
| 주식발행(ECM) | NH투자증권 |
| 기업공개(IPO) | 미래에셋증권 |
| 이노베이션 하우스 | JP모간 |
| 채권발행(DCM) | KB증권 |
| 인수금융 | KB국민은행 |
| 대체투자 | KB자산운용 |
| M&A재무자문 | 삼일PwC |
| M&A법률자문 | 김앤장법률사무소 |
| M&A회계자문 | 삼정KPMG |
| 베스트 딜 | MBK파트너스·법무법인광장 |

시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사채 조달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 등 '뉴 이슈어(New Issuer)' 공략에도 앞장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50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에 총 4조720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흥행 성공으로 발행 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영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도왔다는 점도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자금 조달 파트너 자리매김
DCM 부문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의 역량이 빛을 발했다. 총 15조6315억원어치 채권 발행을 주관했다. 일반 회사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주선 실적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국내 사상 최대인 1조 3900억원 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할 당

한화오션 등 兆단위 유상증자 이끌어

주식발행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주식발행시장(ECM) 분야 최우수 하우스로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ECM에서 22건의 대표 주관 맡아 1조7628억원어치의 주식 발행을 소화했다.
지난해 이뤄진 한화오션(공모금액 1조4971억원), SK이노베이션(1조1433억원), 롯데케미칼(1조2155억원) 등 1조원이 넘는 유상증자 3건에 빠짐없이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다.
한화오션 유상증자는 작년 ECM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식발행 건이었다. 공모 과정에서도 일반청약 경쟁

률 1326대 1을 기록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며 작년 ECM 분야에서 랜드마크 딜로 꼽혔다. 이 밖에 루닛, CJ바이오 사이언스, 메디포스트, 아미코젠 등 바이오 기업의 유상증자를 맡아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왔다.
유상증자 모집주선 영역에선 OCI홀딩스(4651억원), SD바이오센서(2278억원) 등의 자금 조달을 도와 지난해 가장 많은 실적을 쌓았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다. 대형 IPO 기업의 철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DS단식, 동인기연 등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주관하며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주관사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석철 기자

채권주관 名家 ... 11년 연속 실적 1위

채권발행
KB증권
KB증권은 11년 연속으로 채권발행시장(DCM)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채권 시장 최강 증권사로서 입지를 재차 입증했다. KB증권은 지난해 총 627건, 25조268억원어치 채권(은행채·특수채 제외) 발행을 대표로 주관해 한국IB대상에서 DCM 부문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시장점유율은 21.28%로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20%를 넘어섰다.
KB증권은 옛 KB투자증권 시절부터 기업 회사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3년 처음으로 IB대상 DCM

부문을 받았으며 현대증권과 합병한 뒤부터 경쟁력이 더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KB증권은 단일 회사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자산운용화증권(ABS) 분야에서 모두 선두권에 오르며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LG에너지솔루션(1조원), LG화학(8000억원) 등 대형 거래를 주관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다양한 조달 거래를 이끌면서 기업들의 자금 통로 개척도 뒷받침했다. 또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외화채 주권 실적을 쌓았다.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의 외화채 발행을 주관했다. 지난해 7월 현대캐피탈이 발행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 업무도 맡았다. 김영환 기자

'작년 최대어' 두산로보틱스 상장 도와

IPO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기업공개(IPO) 분야에서 최우수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공모주 시장이 중소형 IPO 위주로 꾸러진 가운데 지난해 최대 공모금액을 기록한 두산로보틱스(공모금액 4212억원)를 비롯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대형 공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작년 10월 상장 후 주가는 공모가 대비 약 세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글로벌 중장기 성장력을 기

반으로 해외 롱펀드 투자자를 확보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IPO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한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은 신성에스티, 퓨터, 에이엘티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밀리의사재(플랫폼), 큐로셀(바이오), 스튜디오미르(애니메이션), LB인베스트먼트(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코스닥시장에 데뷔시켰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IPO 대표 주관 금액 9486억원, 주관 건수 18건으로 금액과 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공모가 예측 정확성은 67%로 IPO 주관 순위 15위권 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석철 기자

'兆단위 딜' 5건 중 4건에 이름 올려

이노베이션 하우스
J.P.Morgan
제15회 한국IB대상에서 혁신적인 투자은행(IB)·운용사에 주는 '이노베이션 하우스상'은 JP모간이 차지했다. JP모간은 지난해 조(兆) 단위 딜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1조원대 딜을 다수 수임했다. 5건에 그친 1조원 이상 거래 중 4건에 이름을 올렸다.
JP모간은 지난해 블랙록자산운용의 에어퍼스트 지분 인수(1조2884억원)를 자문했다. 에어퍼스트는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다. 블랙록은 산업용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용 가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베팅했다. 최대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이 거래로 인수 4년 만에 세 배가 넘는 매각 차익을 거머쥐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에도 글로벌 IB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를 투자자로 유치했다. 국내 K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투자 유치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거래였다. 이외에도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의 PI첨단소재 매각(1조원), SK스퀘어의 SK월러스 지분 매각(7883억원) 등 굵직한 거래를 빼놓지 않았다. 허지은 기자

2.6兆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성공

베스트딜
MBK파트너스
Lee & Ko 법무법인(한양)중앙
지난해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베스트딜은 MBK파트너스와 UCK 컨소시엄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가 꼽혔다.
MBK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욱 회장을 설득해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곧바로 공개매수에 나섰다. 2조6000억원이 투입된 '빅딜'이었다. 이후 지난해 8월 상장폐지를 단행해 경

영 효율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랫동안 국내에서 사문화된 공개매수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회자됐다.
MBK파트너스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국내 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개매수 절차를 성공리에 이끌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에 같은 가치를 제시해 주주들의 지지를 끌어낸 거래로도 평가된다.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돼 주주권리보호에 기여했다는 점도 베스트딜로 꼽힌 이유다.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가로 MBK컨소시엄의 협상 전반을 도우며 복잡한 법률 이슈를 해결해 거래 성사에 기여했다. 차준호 기자

의료기기 루트로닉 인수 거래 자문

M&A 재무자문
pwc 삼일회계법인
인수합병(M&A) 재무자문 분야에 선 삼일PwC가 1위를 차지했다. 삼일PwC는 지난해 79건, 9조4403억원 규모의 경영권 거래(발표 기준)를 자문하며 선두 자리에 올랐다.
자본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반적으로 M&A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도 삼일PwC는 중소·중견기업 M&A를 적극적으로 자문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그간 약점으로 꼽히던 대기업 딜에도 다수 참여했다.
루트로닉이 지난해 삼일PwC의 대

표적인 딜이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레이저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을 9720억원에 인수하는 딜을 인수 측에서 자문했다. 특히 삼일PwC는 한앤컴퍼니가 루트로닉 지분 약 78%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고, 자진 상장폐지에 이르는 전반의 절차를 법무법인과 함께 총괄한 점이 고무적인 성과로 꼽혔다.
SK피유코어는 삼일PwC가 대기업 딜에 참여한 사례다. 삼일PwC는 SK가 폴리우레탄(PU) 원료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SK피유코어 지분 100%를 4103억원에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파는 딜에 매각 자문을 했다. 박종관 기자

| | | | |
|---|---|---|--|
| <p>잠실 삼성SDS타워 8500억에 인수</p> <p>베스트 대체투자 하우스 KB자산운용 제15회 한국IB대상에서 부동산 대체투자를 이끈 투자은행·자산운용사에 주는 '베스트 대체투자 하우스상'은 KB자산운용에 돌아갔다. KB자산운용은 지난해 최대 부동산 대체투자 거래 딜인 잠실 삼성SDS타워를 인수하는 등 실물 부동산 매입을 이끌었다. 여러 대체투자 하우스가 부진한 상황에 놓였으나 KB자산운용은 대형 딜을 주도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울 신천동에 있는 잠실 삼성SDS타워 인수가 대표적이다. 인수가액은 8500억원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KB자산운용은 1조원 규모로 조성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의 위탁 운용사 자리를 따냈다. 캠코 자금 1000억원을 받아 총 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류병화 기자</p> | <p>M&A 64건 법률자문, 압도적 1위</p> <p>M&A 법률자문 KIM & CHANG 지난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가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총 64건, 19조2192억원 규모의 거래를 자문해 압도적인 선두에 올랐다. 대형 거래 가뭄 속에서도 기업과 사모펀드(PEF)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해 실적을 쌓았다. 김앤장은 2조3500억원 규모의 SK월러스 M&A에선 매도 측인 SK스퀘어와 인수 측인 EQT파트너스를 모두 대리했다. 이외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의 에어퍼스트 소유지분 매각(1조3000억원)과 한앤컴퍼니의 루트로닉 공개매수(1조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1조10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선 투자자인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를 자문했다. 차준호 기자</p> | <p>에어퍼스트 인수 회계자문 맡아</p> <p>M&A 회계자문 삼정 KPMG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분야에선 삼정KPMG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화제가 된 딜들의 회계자문을 놓치지 않고 맡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UC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의 컨소시엄이 2조4200억원에 치과의료기기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인수 측 회계자문을 맡았다. 이 딜은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크게 화제가 된 딜 중 하나다.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큰 성과를 안긴 에어퍼스트 딜에서도 삼정KPMG는 인수 측인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계자문을 맡았다. 블랙록은 지난해 6월 에어퍼스트 지분 30%를 1조2284억원에 인수했다. IMM PE는 에어퍼스트 지분 100%를 인수한 지 4년여 만에 지분 30%만 팔고도 투자 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 박종관 기자</p> | <p>2兆 인수금융·리파이낸싱 딜 주선</p> <p>인수금융 KB국민은행 지난해 인수합병(M&A) 인수 금융부문에선 국민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2조3433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및 리파이낸싱 거래를 주선했다. 거래를 주선한 건수는 총 12건(인수금융 9건, 리파이낸싱 3건)이다. 국민은행은 3년 연속 인수금융 부문 상을 받게 됐다. 국민은행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여파에도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와 국내 대기업이 주도한 조 단위 규모 거래마다 이름을 올렸다. KCC가 인수한 미국 실리컨 제조업체 모네티브 인수금융과 관련한 리파이낸싱을 주선한 것이 대표적인 거래다. 1조923억원 중 6353억원을 주선했다. KKR이 SK E&S가 보유한 부산도시가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인인 인수금융 신규 딜도 효과 역할을 했다. 국민은행이 단독 주선사로 참여해 3900억원의 실적을 쌓았다. 허지은 기자</p> |
|---|---|---|--|